

빨랫줄 / 김상문

강태공은 곧은 낚시 줄을 드리우고 세월을 낚았다고
어머니는 없는 낚시 줄을 늘이고서 긴꿈을 낚으셨다
주야장천 한가운데 낚싯대 하나 오도커니 세워 두고
별 좋은 날 오지게 씨알 굵은 큰 놈 하나 낚으려한다고
가지가지 크고 작은 미끼감을 주렁주렁 달아 놓았다

때 없이 흔적 없이 밀고 당기고 접고 펴고 주물러서
물 길고 물 갈아 새물내 물씬 나게 싱싱하게 말갱게
팔 걷고 다리 걷고 송글 맺는 땀을 추스르며 훑치며
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 팔 다리 허리 어깨
꿰넣을 저고리 바지 속옷 겹옷 온갖 정성 다 걸었다

거침없이 걱정없이 미끼를 떼어물고 지느러미 흔들며
가장자리 맴돌다가 하나 둘 거친 세상으로 헤엄쳐 간
자식들 올망졸망한 채로 까맣게 때에 절고 혈고 닳아

제가꿈 하나 둘 걱정들을 물고 새물내 어미의 미끼가
그리워 힘 다 하도록 돌아가고픈 한마리 연어가 된다
그때 그곳 그 파아란 하늘뭉이 눈에 박혀 어른거린다